이 시대 남도 현대미술을 보다

담빛예술창고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2019'전

광주전남 청장년 작가 13명 초청… 5월19일까지

박성완 작 '대인시장 이모'

이이남 작 '마오쩌둥-시각착오'

'우리 시대, 남도 미술을 만나다.'

빛으로 표현한 시적 상상력, 존재의 깊이를 표현하는 회화의 힘,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한 현실과 이상의 표현….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의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2019'전(5월19일까지)은 전시 평론을 쓴 양초롱(현대미술사 박사) 미술평론가의 관점에 따라 참여작가의 작품 세계를 분류해 전시한 게 특징인데, 그 관점들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로 작용해 흥미롭다.

광주 전남지역 출신 작가 13명을 초청한 이번 전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는 청장년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시 작가는 강운, 김상연, 김유섭, 김주연, 박성완, 박인선, 신호윤, 양문기, 이이남 ,이정록, 정광희, 조대원, 하루.K로 모두 45점의 작품이 내걸렸다.

회화, 입체, 사진,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작가들의 대표작을 통해 전통과 현대, 사회와 예술, 예술과 대중과의 관계, 새로운 미적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래된 미곡 창고를 개조한 담양 담빛예술창고는 넓은 공간과 높은 층고 등으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기에 좋은 공간이고, 이번 전시 역시 장점을 살렸다.

'빛과 생명, 시적 상상력'에서는 명화와 인물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과 자신의 옷에 식물을 키우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김주연 작가, 나비와 나무를 소재로 환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작가 이정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존재의 심연, 회화와 나'에서는 추상작업에 몰두해온 김유섭, 공기의 가벼움을 화폭에 풀어내는 강운, 한지와 먹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광희 작가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삶의 풍속, 현실의 직접적 제시'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김상연 작가와 일상의 모습을 우직하게 담아낸 박성완 작가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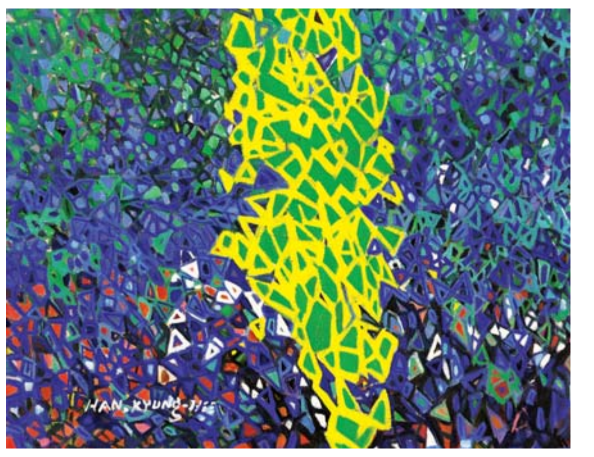
또 '현대 사회와 인간'에서는 루이비통 등 소비의 상징인 명품 가방을 돌로 제작한 작업 '럭셔리 스톤'의 양문기와 쥐·원숭이 등 12지 간지 동물을 의인화 한 '행복한 사유' 시리즈를 통해 현대인들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조대원의 조각작품이 전시된다,

그밖에 '현실과 이상, 매체의 시각적 실험'에서는 사진과 회화 작업을 결합시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박인선, 종이라는 소재를 다양하게 실험하는 신호윤, 정통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루. K의 작품을 전시중이다. 문의 061-383-82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화폭에 음악을 풀어내다

한경희 전, 24일까지 무등갤러리


'Rhythm of forest'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페라 무대에 서는 등 오랫동안 음악과 함께였던 한경희는 항상 그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결국 다시 대학에 입학,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그녀는 음악과 미술을 함께 풀어내는 게 늘 행복하다. 이번 전시작 '바람의 이미지'나 '숲의 리듬' 등은 화려하고 풍성한 색채감과 더불어 자유분방하고 리드미컬한 화면 구성이 눈길을 끈다.

서양화가 한경희 작가가 오는 24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일상의 감정을 음악적 요소를 입혀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감각적이며 시간적 예술인 음악은 긴장감과 함께 젊은 날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회화에서도 시각적·공간적 감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30여년 교편을 잡았으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 다양한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조선대 사대 음악교육과(성악 전공), 미술학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했으며 광주전남여류작가회원, 한국미협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 인도뉴델리 초대전, 미국 LA 아트페스티벌 초대전, 동북아시아순회전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과와 새에 풍요와 사랑을 담아

'美夢'

정춘표 전, 23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전시장을 채운, 어린아이 키보다 큰 붉은 사과와 은빛 사과 조각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한다. 브론즈, 대리석,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한 작은 사과 조각 역시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 덕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백여개가 넘는 사과를 공중에 자유롭게 배채해 놓은 설치 작업도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구상조각과 설치작품의 경계를 오가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춘표 작가의 개인전 '美夢(미몽)'을 23일까지 개최한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과와 새'를 소재로 한 새로운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풍요와 사랑을 상징하는 사과를 통해 아름다움을 꿈꾸는 마음을 서정적이고 맑은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가족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북어 시리즈에 이은 그녀의 두 번째 설치 작업인 사과 시리즈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하며 사진을 찍는 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 작가는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재를 흙으로 빚어 왔다. 의도적으로 무거운 주제를 택하고, 실험적이거나 개념적인 조형언어를 선택하기보다 자신만의 예술언어를 찾기 위해 고민해온 그녀는 브론즈와 대리석 같이 다루기 쉽지 않은 재료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작품으로 구현해 왔다.

이번 작품을 포함해 시리즈 속에 항상 등장하는 한 마리의 새는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 훨훨 날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는 작가가 유년시절을 보낸 화순에 대한 향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일본, 프랑스, 광주 등에서 15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조각분과 이사,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5일부터 '설득 소통 위한 수사학' 강좌

장춘석 교수

개인이든 사회든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결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무엇보다 설득과 소통이 요구된다. 동서양의 수사학 공부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소(소장 박해용) 주관으로 책방 심가네박씨(광주시 동구 동명로 67번길 22-2)에서 '설득과 소통을 위한 수사학' 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오는 25일부터 오는 6월 22일(목·토 오전 10시)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인문학교육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은 박해용 박사가 '경쟁과 다툼의 시간'(25일), '소통과 설득하는 만난을 위한 조건들'(5월2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김태완 박사가 '동양적 관점에서 본 언어 사용법'(5월9일), '무위자연과 일상의 말하기-도가적 말하기'(5월16일)를 강의한다. 다음으로 심옥숙 박사가 '감정의 소통과 표현1'(5월23일), '감정의 소통과 표현2'(5월30일)를 이야기한다.

뒤이어 김재홍 박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서양의 수사학1'(6월8일), '아리스토텔레스와 서양의 수사학2'(6월13일)을 주제로 강좌를 펼친다. 성진기 교수와 장춘석 교수는 각각 '현대인에게 필요한 말하기 방식과 태도'(6월15일)을 강의한다. 마지막 시간은 박해용 박사의 '그룹의 주제별 설득과 토론 워크숍 및 종강식'(6월22일)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5205-56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